

가정 예배 모범

- 2022_07_10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7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찬송가 484장)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히브리서 7장 11절~ 19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레위인보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레위인의 제사 직분과 희생제사 제도는 백성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레위인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고, 잠정적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인과 같이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8,19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이미 씨의 형태로 그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씨가 다윗의 때에 더 선명하게 나타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옛 계명의 제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이 소망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